'성난 사람들' 성공의 진짜 이유

태평로

김 태 훈
논설위원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에미상 8개 부문을 석권하자 국내 일부에서 '한국적인 이야기가 통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드라마에 한국적인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감독과 배우 여럿이 한국 출신 미국인이다. 라면과 떡볶이, LG전자, 대한항공, 한인 교회도 나온다. 주차장에서 경적을 울리며 시작된 사소한 시비가 숨 막히는 복수극으로 치닫는 '성난 사람들'은 흡입력 강한 드라마다. 필자도 지난해 나오자마자 10부작을 몰아보기로 주파했다. 그러나 한국적인 것에 끌렸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성진 감독도 말했듯, 그 드라마에서 한국적인 디테일은 이야기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한 소품일 뿐이다. 드라마에 빠져든 것은 그토록 쉽사리 분노의 감정에 굴복하는 두 주인공에서 거울로 내 마음을 비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엔 할리우드가 동양 스토리를 다뤄 온 익숙한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 이민자의 정체성이라든가 인종차별 같은 테마도, 주인공에게 애매한 조언을 날리는 멘토나 무술 고수 캐릭터도 볼 수 없다. 동양인이 비중 있는 역할로 나와 지금껏 서양 배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메인 스토리를 맡았다. 남자 주인공 대니는 가난한 도급업자다. 한국에 있는 부모와 끈끈한 정을 나누지만 손대는 일마다 실패해 여러 번 죽을 생각을 한다. 여주인공 에이미는 화분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그러느라 딸을 방치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남편이나 거래처와는 겉도는 인간관계에 환멸을 느낀다. 사는 모습은 달라도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 결핍감에 신음한다는 데서 둘은 같은 처지다. 고슴도치처럼 상처를 감싸고 웅크렸다가 누군가 건드리면 폭발하듯 가시를 뻗어 공격하는 행태도 같다.

> "한국적인 이야기가 통했다"고? 인간의 분노라는 보편적 현상을 서구 문화 연구해서 표현한 게 그들에게 박수받은 진짜 이유

'성난 사람들'은 '분노하는 인간'이란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신화와 고전,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풍성한 문화 향유 경험을 선사한다. '결핍이 분노를 부른다'는 문제의식은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서사시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유노의 분노'와 연결된다. 여신 유노는 바람둥이 남편 유피테르가 인간 여자와 동침한 것을 처음엔 못 본 척 넘기지만, 여자가 임신하자 결핍감에 빠져든다. "네가 은밀한 정사로 만족했다면 내 결혼 침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임신까지 했어. 그런 일은 내게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라며 분노에 휩싸여 여자에게 죽음의 벌을 내린다.

대니가 자신의 풍요를 부러워하자 에이미는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사라져"라며 "인간은 자기 꼬리를 먹는 뱀일 뿐"이라고 한다. '겉보기엔 성공했지만 그러느라 자기 삶을 갉아먹었다'는 에이미의 자각은 그리스 신화 속의 뱀 우로보로스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1990년대 결성된 록밴드 후바스탱크의 히트곡을 들려주고 실비아 플라스의 시를 읊으며, 저명한 20세기 미국 소설가 조지프 헬러의 소설 이야기로 수다도 떤다. 사투를 벌인 끝에 서로의 몸속에 들어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환상적인 경험을 한 두 사람은 '그토록 미워했던 이가 또 다른 나였다'는 깨달음에 이른다. 지난해 봄 드라마가 공개되자 미 ABC 뉴스는 "에미상을 잘 닦아 놓으라"며 일찌감치 수상을 예고했다. 서구의 오랜 문화적 축적을 탐색하고 솜씨 좋게 버무리느라 애썼을 동양인 감독과 배우들의 노고를 알아본 것이다.

드라마 10화의 제목은 '빛의 형상'이다. '깨달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알아차림으로써 온다'는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융의 글에서 따왔다. 이성진 감독도, 주인공을 맡은 스티븐 연과 앨리 웡도, 동양인에게 익숙한 스토리와 할리우드가 강요하는 반복된 역할에서 벗어나는 모험을 택했기에 에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섬 [174]

동해 피문어

지난해 겨울 동해 가장 북쪽에 있는 명파마을로 가는 길이었다. 식사를 위해 대진항에 들렀다가 피문어를 삶는 모습을 보았다. 피문어를 삶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본 것은 처음이다. 얼핏 보아도 10킬로그램은 넘을 것 같았다. 낚시로 잡아 온 피문어다. 현지 어민들이 말하는 낚시란 '지가리'를 말한다. 피문어는 낚시와 통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잡는다. 강원도에서는 지가리 낚시만 허용하고 있다. 지가리는 낚시 서너 개를 갈고리 모양으로 묶고 문어를 유혹할 수 있는 미끼를 매단 어구를 말한다. 지금은 가짜 미끼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돼지비계를 미끼로 사용하기도 했다. 배 한 척에 40여 개의 지가리를 가지고 조업에 나선다. 문어가 있을 만한 자리에 지가리를 던져 놓고, 부표가 움직이면 건져 올려 잡는다.

피문어는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조업 기간도 길고, 찾는 사람이 많아 어민들 생계에 큰 도움을 준다. 대문어는 서해나 남해에서 잡는 작은 참문어와 달리 다 자라면 50킬로그램 이상이다. 그래서 대문어라고 하며, 삶으면 붉은색이 선명해 피문어, 물을 많이 품고 있어 물문어라고도 한다. 참문어는 돌문어나 왜문어라고도 부른다.

솥에 물이 끓자, 남편이 다리를 붙잡고 아내가 칼로 다리들 사이의 막을 잘랐다. 이번에는 아내가 다리를 잡고 남편이 몸통을 뒤집어 내장을 꺼내 잘라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후 솥으로 옮겼다. 삶는 동안에 문어를 이쪽저쪽 뒤집어 골고루 익도록 했다. 그렇게 약 5분 정도 삶은 후 머리를 반으로 절개하고 빨판 사이에도 칼집을 넣었다. 특히 머리와 이어진 굵은 문어발은 잘 삶아지지 않는 부위다. 오래 삶으면 질겨지고 식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골고루 같은 시간에 삶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15분 정도 삶은 후 문어를 두 개의 갈고리를 이용해 걸대에 걸었다. 그리고 나무 꼬챙이로 다리의 여러 곳을 찔러 살과 껍질 사이에 들어 있는 물을 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피문어는 돌문어에 비해 부드럽고, 겨울철이 제철이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해 동해안뿐 아니라 경북 영주·안동·봉화 등에서 제수용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윤·한 만남, 더 이상 국민 불안케 하는 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한 위원장은 크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악수하며 어깨를 다독였다. 두 사람은 30여 분간 함께 사고 현장을 돌아보고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 이날 만남은 사전 조율을 거쳤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의혹' 문제로 충돌했던 두 사람이 이틀 만에 갈등을 일단 봉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걱정했던 국민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20년 넘도록 가깝게 알고 지낸 사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한 위원장을 법무장관에 임명했고, 이어 총선을 책임질 여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겼다. 그런 관계인데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충돌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안보 경제 위기 상황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취임 1년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3년이 넘는 임기가 남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한 위원장 사퇴 요구로 국정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그 이유도 정책이나 중대 노선이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문제라니 국정과 가정 문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준다. 윤 대통령은 부인이 부적절한 인물과 만나고 그에게서 명품 가방을 받은 문제에 대해 함정 몰카에 당한 것이니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그런 판단과 결정에 대해 자신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경질하려는 것은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대통령이 더 이상 권위와 리더십이 훼손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헤어진 뒤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과 겪은 갈등은 결국 한 위원장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사과할 생각이 없고, 다수 국민은 사과와 해명을 바라는 중간에 한 위원장이 끼어 있다. 소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여기서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혜와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도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 '5대 혐오 범죄' 공천 기준, 당대표에게 적용한다면

민주당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성범죄, 음주 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을 '5대 혐오 범죄'로 규정하며 공천 심사 때 이와 관련된 도덕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5대) 혐오 범죄를 저지른 인사는 국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 중"이라며 "공관위 도덕성검증소위가 컷오프 대상으로 판단하면 내가 책임지고 컷오프시킬 것"이라고 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천 기준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엔 큰 걸림돌이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기준에 적합하냐는 의문이다. 이 대표는 2004년 성남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구금된 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0.158%면 심각한 만취 상태다. 이 대표는 2021년 관훈토론회에서 "음주 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자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도청 공무원을 자신과 배우자의 개인 심부름에 동원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당시 도청 7급 공무원은 매일 아침 이 지사가 벗어 놓은 속옷, 양말을 세탁기에 돌리고 와이셔츠는 세탁소에 맡기는 등 사적인 일에 동원됐다. 이 지사가 즐겨 쓰는 일제 샴푸가 떨어지면 판매처인 서울 청담동에 가서 사오기도 했다. 전형적 직장 갑질이다.

이 대표는 여성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형수에게 반복해서 했다. 성남시장 시절 인터넷에 "이 멘션(언급) 보고 기분 나쁜 님들, 그대들이 곧 강아지니라"와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이 대표의 전력에 대해 임혁백 위원장은 자신이 밝힌 5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임 위원장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비리와 관련된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4년 전 21대 총선 때는 "하급심에서 재판 중인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했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임 위원장이 이 기준을 밝힌 것은 이 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7개 사건에서 10가지 혐의로 재판받는 이 대표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체포 동의안이 청구됐던 노웅래 의원 등 현재 재판 중인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영상 사설

연일 최고치 미·일 증시, 지배 구조 개선해야 韓 증시도 평가받을 것

미국 주식시장에서 AI(인공지능) 특수로 S&P 500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파죽지세로 상승 중인 일본 주식시장의 닛케이 지수는 거품 경제 시절이던 1990년 2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을 떠난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일본으로 몰린 데다 엔저에 힘입어 일본 수출 기업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7% 하락하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 증시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급등한 직접적 계기는 저금리와 엔화 약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장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개선된 것이 투자자들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해외 투자자에게 외면받자 10여 년 전부터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을 꾸준히 펴왔다.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공적 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 투자자들 이해가 반영되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도쿄증권거래소는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낮은 기업들에 개선 대책을 만들어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이 쌓여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됐다.

한국 증시의 부진도 경제 전망과 기업 실적이 불투명한 탓이 크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의 함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에다 소액주주는 외면당하고, 증시 교란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도 솜방망이여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가 부족하다. 사외 이사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오너나 경영진 이익에 부합하느라 소액주주들이 희생당한다. 높은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대주주는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며 배당도 현저히 적게 한다. 이렇게 수익성 낮은 한국 주식에 해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주로 한다. 정부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증시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업 지배 구조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다.

물러서지 말라… 이재명·김정숙·김혜경 약점 때려라

뉴데일리 newdaily.co.kr

윤석열·한동훈 이간질에 농락 당하면, 대한민국 죽는다 | 방어에만 급급하지 말고, 적 약점 먼저 찾아내 공격하라

| 尹·韓, 둘만 죽는 게 아니다

4.10 결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에 일대 충돌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경율** 비대위원 건과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사실여부는 아직 석연친 않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나, **'계속 할 일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된 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자칫 함께 다칠 수 있다. 국민의힘 전열(戰列)도 흐트러질 수 있다. 자유 진영도 4.10 총선을 그르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도 지도에서 사라진다. 어쩌할 것인가?

| 최선의 방어는 공격

☆ 윤석열 대통령 ☆ 한동훈 국민의힘 ☆ 전체 자유 진영에 역설한다.

※ 사태의 실상(實相)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사과]***? 사과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다. ***[몰카 공작]*** 꾼들과 그 피해자, 어느 쪽이 사과해야 하는가?

※ 국민의힘과 자유 진영은 적(敵)이 닥치면 그제야 반응하지만 말고, 공격 목표를 적극적으로 수색·섬멸하는(search & destroy) 전략으로 가야 한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한반도에선 늘 좌익이, 공격을 시작했다. 6.25 남침 초기에도 서울이 개전(開戰) 3일 만에 함락됐다.

| 물러서면 당한다

오늘의 총선 정국에서도 ***[좌익 + 기회주의 중간파 + 그 후원 매체(媒體)들]***이 ***[명품 다올 파우치]***를 들먹이며 **윤석열·한동훈**을 이간하고, 힘 빼려 한다.

★ 국민의힘 물갈이 대상들 ★ 다선 중진들 ★ 일부 실세들도 각자의 필요에서 이를 부채질한다.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소환한 **김경율**의 **[분별없는 발언]**처럼, 좌파의 기획 공격에 신경 쓰여 그것에 주눅들어 주고, 우쭈쭈 해주고, 사과하면 **[중도확장]**이 되는가? 꿈 깨라. 굽히고 들어가는 자는 무시당한다.

김여정이, **[북한 대변인]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라 하대한 것을 보라. 당당한 자유 투사라야 적도 무시 못 하고, **[왔다 갔다 표]**도 일부 끌어올 수 있다.

| 공격축구 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

그렇다면 2024 총선 국면에서 좌파의 파고(波高)를 넘어서려면, 자유 진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다. 그것을 잡아채 역공(逆攻)의 포탄을 쏟아부어야 한다.

※ ***이재명***이 ***"우리 북한의 선대,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한 망언.

※ ***김정숙***의 ***[나 홀로 타지마할] +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용]***.

※ 119 응급 헬기를 갖다 쓴 ***[이재명의 갑질]***.

이런 꼼짝 못 할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오늘의 싸움은, 일론 머스크가 찍어 보인 한반도 위성사진 **[광명 vs. 흑암(黑暗)]**의 한 치의 타협 없는 대결이다. 국힘은 아직도 이 차이가 몽롱한, 희뿌연 꿈속에 있는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다행히 23일 만났다. 그러나 국힘 당노선은 아직도 확실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작년 **[8.15 경축사]**가 밝힌 **[자유의 세계관]**을 당 수습의 기조로 삼았으면 한다.

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류근일 칼럼 '문재인 5년'은 '흥위병의 난' 시대 … "한동훈, 이재명 보다 훨신 진보적"

류근일 칼럼 김정은 "남북은 적(敵)과 적" … 남한 극좌 향한 '제2 남로당 숙청' 선언

이영승 칼럼 전라도도 달라져야 한다 … 대통령에 행패 부린 강성희 꾸짖으라

류근일 칼럼 이재명 망언 때려라 … 자유진영, 방어만 말고 공격하라

이영승 칼럼 尹·韓, '반간계' 조심하라 … 국힘·보수우파·대한민국 다 망한다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월 23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70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